

마한 유적 영암시종고분군, 국가지정유산 사적 지정

고대 마한 유적인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과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이, 7일 '영암시종고분군'의 이름으로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영암군에서는 1989년 '구림리 요지' 사적 지정 이후 이뤄진 35년 만의 성과.

지역사회는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을, 고대 마한을 포함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맞고 있다.

영암시종고분군은 5C 중·후반~6C 초에 조성된 유적으로, 전통 옹관묘에서 대형 방형 분구 석곽묘·석실묘로 변화하는 마한의 매장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대의 토목 기술과 공동체 조직 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 고고학 자료다.

아울러 백제·가야·중국·왜 등의 외래문화를 수용한 마한 세력의 뚜렷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적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영암시종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도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 토기 등 다양하다.

특히 청자잔, 동남아산 유리구슬, 원통형 토기, 동물형 토제품 등 외래에서 전래된 뒤 현지화한 유물은 당시의 문화교류사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다.

민선8기 영암군은 '마한의 심장, 영암'을 군정 주요 비전으로 삼아, 문화유산팀을 신설하고,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등 마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

국가유산청, 5~6C 내동리 쌍무덤과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묶어 등록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등 민선8기 영암군 '마한의 심장' 정책 결실



토기(옥야리 장동방대형 고분출토)

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영암군의 시종고분군의 사적 지정 노력은 2009년 장동 방대형 고분 시굴조사로 시작됐다.

이 조사는 2018년 내동리 쌍무덤 정밀조사를 포함한 15년의 학술조사가 더해지며 2022년 사적 지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을 신청한 영암군은, 2022년 국가유산위원회의 '2009년부터 조사된 장동 방대형 고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두 유적의 가치를 통합 정리해 사적 신청에 나섰다.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은, 2023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함께 영암군의 마한 역사문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암군은 시종고분군의 체계적 보존·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



옥야리 장동방대형 고분전경

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전라남도도 협력해 마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함께 '마한의 심장, 영

암'을 국가가 확인해 준 쾌거다. 전라남도조례 제정-문화유산팀 신설-학술조사-사적 지정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전략적 노력이 맺은 빛나는 결실이다. 두 성과를 바탕으로 마한의 심장 영암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무등·사직·산수도서관, '초등 여름독서교실'... 체험형 운영

여름방학을 맞은 광주 초등학교를 위한 체험형 독서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문해력·사고력·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여름독서교실이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무등도서관은 '문해력이 들려면'을 주제로 초등학교 2~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우는 활동형 수업이 진행된다. 시 필사, 글자 보드게임, 내만의 그림책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사직도서관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주제로 독후활동과 토론, 골든벨 퀴즈 등이 펼쳐진다.

산수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2~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 문화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세계 곳곳, 만들고(GO), 알고(GO)' 주제로 북아트, 피라미드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 표현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송경희 사립도서관장은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7월 7일부터 선착순 접수...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

광양용강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6~7세)을 위한 '맛있는 그림책 퍼즐 놀이'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아, 읽자!' 총 2개 강좌로 구성됐다.

두 강좌 모두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감정 표현력과 발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책 놀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여름아, 읽자!' 강좌는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운영되며, 수료 후 우수 수강생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용강도서관(☎061-797-38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며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2025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7월 상설공연 움직이는 예술광장 운영

순천 도심 곳곳 지붕 없는 예술공간으로 시민들 찾아가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2025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하 아고라 순천) 7월 상설공연을 순천시 일원에서 진행한다.

'2025 아고라 순천'은 7월 한달 '아고라 365 Festa_여름의 리듬'을 주제로 시민들과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순천시 곳곳에서 뜨거운 여름을 담은 열정 가득한 공연을 선보인다.

'2025 아고라 순천'은 공연 시간과 장소의 정례화를 통해 관객이 찾는 공연을 진

행중이다. 첫째주 토요일 강정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둘째주 토요일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셋째주 토요일은 오전그린광장, 넷째주 토요일은 조례호수공원에서 아고라 순천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25 아고라 순천'은 연중 상설로 진행되는 '아고라 365 Festa_움직이는 예술광장'과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에 맞춰 시민 참여형 기획프로그램 '향구네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고라 순천의 자세한 공연일정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과 2025 아고라 순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붕없는 예술공간에서 시민 모두가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원한 바람으로 찾아가는 7월 아고라 순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